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설법의 도구인 언어의 중요성은 부처님 당시에도 강조됐다. "그 지역의 언어로 포교하라"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불교자들은 포교대상자의 언어를 구사했고, 그러한 노력은 즉각적인 포교효과로 나타났다. 오늘날도 해외포교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언어'다. 이 언어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교포 위주의 포교에 그칠 뿐 교포 2세나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와 더불어 해당 언어로 번역된 포교 교재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재는 한국불교를 알리는 또 다른 '포교사'이기 때문이다. 해외 포교를 위한 언어교육과 교재발간 현황은 어떠하고, 효과적이고 올바른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짚어본다.

“영어 번역서 발간 시급하다”

'무언의 포교사' 영문책자 필수

해외포교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바로 '교재'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은 외국인 교포들에게 한국불교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경전이나 불교 개설서 등의 포교서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포교사가 현지 언어에 유창하다고 하더라도 '말'만으로 한국불교를 알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해외포교사 30% "교재 부족" 호소

외국인들이나 교포들에게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문서적과 잡지, 사찰에서 나누어주는 소책자 등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이 지난 200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포교사 중 30%가 교재 부족을 호소해 해외포교에 필요한 서적 발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대부분의 해외 사찰에서는 교재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일본이나 티베트 불교계에서 펴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불교 관련 영문서적은 30여 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서적은 대부분 일반적인 개론서 수준에 머물고, 출판사의 서적 배급망이 협소한 관계로 인터넷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불교 영문서 총 30여 종 뿐

조계종에서 펴낸 영문책자로는 한국불교에 대한 개설서라 할 수 있는 <Korean Buddhism>과 <What is Korean Buddhism?>, 한국사찰 안내서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 영문 정기 간행물인 <Lotus Lantern>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어로 번역된 법요집과 불교성전을 비롯해 연등국제불교회관과 한마음선원 등에서 꾸준히 발간하는 불서들이 그나마 대표적인 해외 포교 교재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불교성전>으로 유명한 일본 불교전도협회가 영어는 물론, 불어, 에스파냐어, 독일,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을 포함해 40여 개국 언어로 <불교성전>을 번역해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일본 불교전도협회는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에 번역센터를 마련해 경전 번역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문잡지 제정·인력난에 '허덕'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최근 이 같은 포교 교재 발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본 한국불교 소개 책자를 발간, 세계 각지의 한국 사찰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동국대학교가 <원효전서>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2005년 독일 프랑프루르트 국제도서전에 소개될 <지놈의 선사상> <선기귀감> <한국선서> 등도 국비지원을 받아 번역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의 갈등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다.

서적뿐만 아니라 1989년 창간된 <미주현대불교>와 2002년 복간된 <Spring Wind>, 월간 <뉴욕불교>와 <문수사 풍경소리> 등의 영문 잡지 등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이들 잡지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활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나 인력난 등으로 폐간, 복간을 반복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용철 교수 역시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한국 불교의 의례나 수행 체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영문책자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언어로 된 불서 발간은 단순한 포교 교재로서의 차원을 넘어 중단 차원에서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는 방편으로 삼아 활발히 출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말과 글' 벽 넘어야 세계화 보인다

"그 지역 언어로 포교하라"

"직지인심 경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우리의 마음이 곧 진리며 그것을 깨지면 곧 부처라는 조사선의 가르침이다. 그 깨달음은 교(敎) 밖에 있는 것이고, 문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수많은 중생을 향해 법을 전하려 할 때 1차적으로 말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 언어는 포교에서 매우 중요한 방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다.

●취약한 외국인 교육 시스템

9월 한 달간 본지가 해외 한국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스님들이 외국어 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장벽이 자칫 최근 활발해진 해외포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80년에 도미, 현재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일 스님(법왕사 주지·남가주사암연합회장)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스님들은 교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조차 큰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님들이 외국어 문제를 겪게 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해외포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포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전 세계에 200여개 사찰을 두고, 미국에 서부대학을 설립하는 등 해외포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대만 불교 또한 우리 못지않게 외국어라는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 스님은 일찍이 "외국어 못 못하면 국제화도 할 수 없다"며 외국어 교육을 강조했다.

●대만 불광산사에서 배우자

해외포교 지망자에 대한 교육은 불광산총림학원 국제학부 영문불학원(英文佛學院)과 일문(日文)불학원에서 이뤄진다. 불학원은 우리의 강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2~4년간 불교 교리, 사찰관리행정, 포교,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는데, 전 과



대만 불광산총림학원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교육시켜 해외포교의 인재로 배출한다.

사진제공=대만 불광산사

정이 영어 또는 일어로 진행된다. 이처럼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배출되다보니 해외 현지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광산사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해서 중국어와 교리를 공부시켜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3년간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 2년간의 국내 교육과 1년간의 해외 실습이 포함된다. 이 모든 과정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포교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이 거의 유일하다. 1995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76명의 국제포교사가 배출됐다. 6개월 과정에서 연수생들은 주 2회, 두 시간씩 한국 불교, 교리, 역사, 통·번역 등을 교육받는다. 6개월 가운데 후반 3개월 수업은 영어 또는 일어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는 교리 이해와 외국어 실력 배양에 턱없이 짧은 기간이어서 교리

와 외국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는 무리가 있다. 중앙승가대 경우 필수과목으로 영어 4학점과 영어회화 선택이 가능하며, 포교사회학과에 한해 포교영어 과목이 개설돼 있다. 그 외 강원에서는 영어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조계종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강원에서 외국어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영어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교용어 영어표현 교육 절실

이처럼 외국어 교육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포교를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불교> 편집장 이종권 국제포교사는 "일반 영어는 물론 교리 설명에 필요한 불교용어의 영어표현을 익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국내 발간 해외포교 서적

- <Korean Buddhism> <What is Korean Buddhism?>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 (조계종)
- <On Thrust in the Heart> <Inspiring yourself to practice>
- <Korean Buddhist Temple Tour Book> <Admonitions to beginning Students> (연등국제불교회관)
- <Buddhism in Korea>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Korea> <Ch-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 <Son Thought in Korean Buddhism> <Buddhist

- Thought in Korea (동국대학교출판부)
- <The Inner Path of Freedom> <To discover true self> <Mind, Treasure House of Happiness> <Let and Observe>
- <Walking without a Trace> <El Camino Interior> (한마음선원)
-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승산 스님 지음, 랜덤하우스)
- <영문 법요집 Devotional Chanting & Essence of Buddhism> (현원 스님 옮김, 부루나)
- <영한대역 불교성전 The Teaching of Buddha> (해운 스님 옮김, 현암사)

- <영한대역 불교성전> (윤지규 옮김, 경서원)
- 영어로 읽는 법구경(담마만다 영역, 이병두 국역, 불교시대사)
- <Smiles of the Baby Buddha> (유홍준 지음, 창비)
- <Korean Buddhism> (삼재용 지음, 집문당)
- <Opening the eye> (성철 스님 지음, 김영사)
- <Buddhist is your friend> (작은손길 펴냄)
- <Empty House> (크리스 베레베시 지음, Eastward)
- <Korean Temples & Food> (이정 지음, 에이아트)
-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방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델리-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자유인이 되는 길

< 21세기 정신세계의 대혁명 >

인류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해 온 종교적 무지와 맹신을 남김없이 몰아낼 수 있는 혁명적 가르침.

깨달음이 실종된 진리의 암흑시대에 구도자를 참된 길로 이끌어주는 명쾌한 지침서.

도서출판 다나 / 신국판 287쪽 / 값 10,000원

해공선생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명상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 장소: 정신세계원 (02-747-7033)